

한전, 튀르키예 신규원전 사업개발 본격화

현지 원자력공사와 MOU 체결
사업 전반 협력 기반 마련키로
김동철 사장·에너지부 장관 면담

한국전력이 이번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계기로 튀르키예 원전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개발을 본격화한다.
한전은 25일 “전날 튀르키예 대통령궁에서 튀르키예 원자력공사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한전은 MOU를 통해 튀르키예 신규원전 사업

개발 추진을 공식화하고 사업부지 평가, 원자력 기술, 규제 인허가, 현지화 등 원자력 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사업 예정 부지 평가를 위한 공동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이날 알파르슬란 바이라타르(Alparslan Bayraktar) 에너지천연자원부(Ministry of Energy and Resource·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시놉(Sinop)원전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조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김동철 사장은 “시놉원전 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튀르키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한전은 UAE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으로 시놉원전 사업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파르슬란 바이라타르 장관은 “한전이 우려하는 사업 리스크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시놉원

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튀르키예는 2022년에도 한전에 시놉원전 사업 참여를 공식 요청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033년에 29%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은 MOU 체결과 에너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양국 간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부지평가 등 사업개발 초기단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경제성을 검증한 뒤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놉원전 사업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임채만 기자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후원금 기탁

동구청에 3천만원 전달

지역아동센터 3개소 환경 개선 지원

광주은행은 25일 광주 동구청에서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사업을 위한 후원금 3천만원을 기

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는 광주은행 김재춘 부행장과 임택 동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함께했다. (사진)
이번 후원금은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의 환경 개선에 사용됐다.
아동 안전을 위한 방염 벽지 및 장판 교체, 학

습용 책상·의자 교체는 물론 생활공간 내 수납 시설 및 싱크대 개보수 등 시설 전반을 정비해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은 광주은행이 2015년부터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열악한 돌봄 환경에 놓인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학습·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주은행은 올해에만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광주·전남 지역 46개 아동센터의 개

보수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총 177개소의 환경 개선 사업을 완료했다.
광주은행 김재춘 부행장은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할 가치”라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향토은행으로서 아동 복지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 및 소외계층 청년 지원,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캠프 운영, 학습비 및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임채만 기자

2025 사직역사문화교실

물순환 도시와 ‘통샘’문화의 자원화 - 작은 커뮤니티를 큰 공동체로 -



| 일시 | 2025.11.28 (금) 15:00
| 장소 | 광주 향교 문회재(文會齋)

좌 장 김덕진 (전 광주교육대 교수 / 사직문화재단 이사)

물순환 도시조성

발 제 : 윤희철(한국 지속가능발전 센터장)
지정토론 : 조인형(전 광주발전연구원)

통샘 커뮤니티

발 제 : 설정환(전 북구 도시재생센터 대표)
지정토론 : 박종찬(광주대 교수)

자유토론 : 오성수 (광주 매일신문사 상무이사)

임미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이남숙 (사직동 주민자치회장)

주 최: 광주광역시남구

주 관: 사직문화재단 (사직문화 보존시민모임)

후 원: 광주매일신문

사직동주민자치회

광주광역시향교

사직동행정복지센터



광주신세계, 크리스마스 한정판 ‘트리와인’ 선보여
원들이 한정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의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크리스마스를 한달 앞둔 25일 광주신세계백화점 본관 지하 1층 와인하우스 매장에서 직
(광주신세계 제공)

농협광주본부, 돌봄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농업인행복콜센터’ 접수 통해 선정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농사를 지어온 농가들을 찾아 도배·장판 교체와 싱크대·보일러 설치 등을 진행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광주지역본부는 25일 “지역본부 직원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찾아 각 가정의 사정을 세밀히 살피고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와 보일러 교체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맞춤형 수리를 진행했

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NH농촌현장봉사단 노후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행복콜센터 접수를 통해 선정됐으며 현장 실사를 거쳐 주거상태와 개선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새 보일러 설치로 겨울철 난방 효율을 높여 농가의 에너지 부담을 줄였다. /안태호 기자

광주경총, 28일 금요일조찬 포럼 개최

환경·조경 전문가 서주환 박사 초청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8일 힐리데이인 광주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환경과 조경 전문가 서주환 박사를 초청해 ‘새로운 광주를 위한 지역 기반의 혁신적 변용과 실천’을 주제로 제176회 금요일조찬 포럼 특강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 박사는 밝은사회국제클럽 한국본부 총재와 한국녹색플랜연구소 원장으로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 총재, 한국조경학

회 회장,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번 강연은 ▲광주,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지역 정체성의 개념과 의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변용 ▲실천적 전략 ▲실천의 철학-GCS 5대 운동과 연결하다 ▲함께 만드는 새로운 광주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역사를 혁명했던 광주가 내 삶을 혁명하는 광주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새로운 산업 경쟁력이 필요한 시점에 전문가를 초청해 광주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장 안전수칙

지붕 추락사고 핵심 예방 대책

작업 중 반드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착용

취약한 지붕재 위 덮개 또는 발판 설치

덮개 또는 발판 설치 곤란 시, 지붕 하부에 추락방호망 설치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